

맨시티 '기적의 5분'... 44번째 슈팅, 44년만의 우승



이구어로 "내가 넣었다구" 13일(한국시각) 영국 맨체스터에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12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와 퀸즈 파크 레인저스(QPR)와의 38라운드 최종전. 맨시티의 세르히오 아구에로(상의 탈의)가 기적같은 인저리타임 역전골을 성공 시킨후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반 인저리타임 두 골... QPR에 3-2 역전승 맨유, 최종전 승리하고도 골득실차 2위 '눈물'

이청용의 볼턴 2부 강등

한편의 기적같은 드라마였다. 인저리타임 단 5분사이에 천당과 지옥이 뒤바뀌었다.

맨체스터 시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대 드라마를 만들며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다. 맨체스터 시티는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터트리며 퀸즈파크레인저스에 3-2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모두가 놓쳤다고 생각했던 우승컵을 다시 거머쥐었다.

경기를 3분 먼저 끝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선덜랜드에 1-0으로 이기고, 우승세리머니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까지는 맨시티는 퀸즈파크레인저스와 2-2 동점이었다.

퍼거슨 맨유 감독이 미소를 지으며 경기장을 빠져나오던 중 맨시티가 승부를 뒤집었다. 맨시티는 이날 44번의 쇼나기 슈팅 끝에 44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맨시티의 팬들은 우승을 확정 짓자 일제히 경기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환호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맨유는 맨시티와 나란히 승점 89(28승5무5패)를 기록했으나 골득실차(맨유 +56, 맨시티+64)에 뒤져 분투를 삼켜야 했다. 맨시티는 후반 인저리타임에 예던 제코가 1-2로 뒤진 상황에서 동점골을 만들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데 이어 경기 종료 직전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결승골을 터뜨려 대역전드라마를 완성했다. 박지성은 이날도 퍼거슨 감

독의 호출을 받지 못해 벤치에서 씩씩하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선덜랜드의 지동원(21)도 출장하지 못했다.

한편 이청용의 소속팀 볼턴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로 강등됐다. 볼턴은 14일(한국시각) 잉글랜드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끝난 스토크 시티와의 2011~2012시즌 EPL 운명의 최종 38라운드에서 2-2로 비겼다. 볼턴은 승점36(10승6무22패)에 그치며 19위 블랙번, 20위 울버햄턴과 함께 2부리그로 떨어졌다. 이날 맨시티에 2-3으로 패한 퀸즈파크레인저스는 승점 37로 극적으로 1부리그에 잔류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기적같은 5분의 드라마를 쓰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른 맨시티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이청용 '새드 엔딩'

박, 우승 직전 맨유 팀 리빙딩 속 잔류 관심
李, 강등된 볼턴 따라갈까 다른 팀 이적할까



박지성



이청용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시티의 기적같은 드라마에 분투를 삼키고 정규리그 우승을 놓쳤

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이적설에 시달리던 박지성(31)은 안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맨유는 올 여름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즌 후 리빙딩이 불가피하다.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에 우승 트로피를 넘겨줘 자존심에 생긴 상처가 더욱 깊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정규리그 최종전 직후 영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시즌에 우승컵을 되찾아 오겠다. 맨시티에 이 사실을 꼭 전해달라"며 설욕을 다짐했다. 대대적인 팀 개편의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들은 올 여름에 맨유가 최소 5~6명 이상의 멤버를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소용돌이속에서도 박지성의 위치는 굳건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은 지난해 8월 맨유와의 재계약 당시 "한 시즌 동안 맨유가 치르는 경기의 40% 이상 출전 선수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경우, 별도의 협상 없이 계약 기간을 1년씩 늘린다"는 조항에 합의

했다. 올 시즌 28경기에 나선 박지성은 출전 경기수만으로도 해당 기준을 충족시킨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은 2014년 6월까지로 자동 연장됐다. 또 박지성은 트레이드 거부권도 갖고 있다.

박지성이 맨유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2012~2013시즌이 끝나는 2013년 6월까지 가려진다. 팀 내 입지를 회복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혹여 다음 시즌에도 벤치를 지키는 일이 잦다면 재계약 협상의 주도권은 구단쪽으로 넘어간다.

한편 이청용은 팀과 함께 다음 시즌을 2부리그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청용은 팀이 강등될 때는 다른 팀에 이적할 수 있다는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연습경기에서 오른쪽 정강이뼈 이종골절을 당해 지난 6월 웨스트브로미치전에서 10개월 만에 복귀한 이청용은 부상이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이청용이 이적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다. 볼턴이 고액연봉자인 이청용(약 30억원·계리 케이 할이 헬시로 이적해 팀 내 연봉 1위)을 1부의 다른 팀으로 보내고 이적료를 챙길 수도 있다.

이청용이 이적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다. 볼턴이 고액연봉자인 이청용(약 30억원·계리 케이 할이 헬시로 이적해 팀 내 연봉 1위)을 1부의 다른 팀으로 보내고 이적료를 챙길 수도 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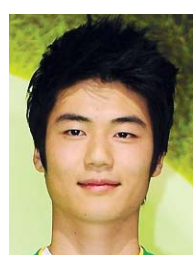
기성용·차두리 우승 세리머니

셀틱, 최종전 5-0 대승

기성용(23)과 차두리(31)가 뛰는 셀틱이 2011~2012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SPL) 최종전을 대승으로 장식했다.

승점 93점(30승3무5패)으로 이번 시즌을 마친 셀틱은 내 시즌 만에 리그 우승컵을 탈환했다.

리그 2위 레인저스(승점 73점)와의 격차를 크게 벌려놓아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짓는 셀틱은 13일(한국시간) 글래스고 셀틱파크에서 하츠와 치른 마지막 경기에서 화끈한 골쇼



기성용

를 펼쳐 5-0 대승을 거뒀다. 다섯 골을 공격수 개리 후퍼가 홀로 책임졌다.

셀틱의 우승에 기여한 차두리는 교체명단에 포함됐지만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이날 경기 후의 우승 축하 세리머니에는 차두리와 함께 부상에서 회복 중인 기성용도 참가해 기쁨을 나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 - 221 - 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